농림축산식품부

장마철 및 태풍 대비 가축 매몰지 특별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철 및 태풍을 대비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가축 매몰지(4,799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 매몰지 이상여부(유공관, 경고판 훼손 등) 및 장마철을 대비한 붕괴, 유실, 배수로, 방수포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붕괴 및 유실 여부 등은 지적되지 않았으나, 배수로 정비, 방수포 비치 미비 등 총 9개 매몰지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적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완 완료했다.

아울러 가축 매몰지가 조성된지 3년이 도래됨(2013. 11. 26부터)에 따라 「3년 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2013. 6. 20)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및 지자체 검사 결과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은 매몰지 및 붕괴 · 유실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한 매몰지는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관리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2차 환경오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미래 발전방향 제시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6월 28일 안양1동 삼원프라자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 전문지 등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부의 그간 추진성과와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박용호 본부장은 지난 2년간 각 분야의 장점을 서로 보완해 시너지를 창출했고, 통합기관 구성원간의 하모니로 지금까지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신임을 받는 등 전문성을 갖춘 가장 적합한 CEO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로 새롭게 출발하면서는 선택과 집중, 융합과 소통으로 '국민이 행복한 청정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글로벌 검역본부라는 큰 비젼과 방향을 제시했다.

하모니와 시너지를 통한 화합분위기를 기반으로 검역본부는 지난 2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구제역(FMD) 백신접종 취약농가 집중점검과 취약요소 관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중앙기동점검반 운영과 간부진 지자체장 직접 면담 등 예찰 강화와 방역관리에 모든 역량을 기울인 결과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발생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보툴리즘,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 돼지열병, 구제역 항체 등 가축질병 발생시 관련부서 협업(역학 · 진단 · 연구 등), 지자체 공동 역학조사 및 신속한 '주의보' 발령으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한 결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

한편 시행 원년에도 불구 높은 참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또한 수출촉진협의회 개최 및 수출우수업체 포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여 동물용 의약품 수출목표 1억4천만달러를 달성하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수출 검역업무에 있어서도 수출생산단지 one stop 지원, 수출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정보교류 및 수출검역요건 타결을 통해 농식품 수출 목표달성에 일조했으며, 한-네덜란드 전자검역증 교환운영 등 서류 없는 국제검역 거래 달성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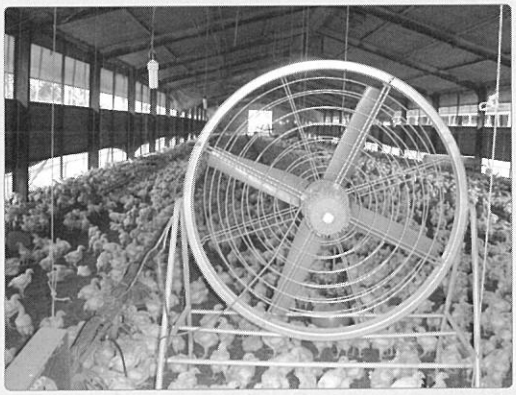
각종 동물질병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내 핵심기구인 동물질병과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세계 최초 브루셀라균 10종 동시감별 진단키트 개발로 2012년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되는 영예도 차지했다.

박 본부장은 검역본부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동물 · 식물 검역 · 방역 · 연구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검역본부의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3F와 3S')을 3C, 즉 '소통', '선택과 집중', '협업' 의 3대 추진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행복한 청정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검역본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 "3F"란 FMD(구제역)와 AI(조류인플루엔자), Food Safety (먹을거리 안전 · 안심), FTA(자유무역 협정)와 Climate change(기후변화 대응)이고, "3S"는 SOP 구축, System 구축, Support와 Collaboration(국내외 공조 체제 구축)임.

농촌진흥청

여름철, 고온스트레스 예방법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양계 사육농가들이 여름철 혹서기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여름철 주요 사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올 여름은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와 더욱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닭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몸 전체가 깃털로 덮여있고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고온에 취약하다.

닭이 지내기 적합한 온도는 20℃ 전 후로

30℃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갈 경우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여름철 육계 사양관리는 다음과 같다.

〈육계〉

- 혹서기 무더위 극복을 위해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차광막을 설치해야 하며 무창계사의 경우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환기팬의 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 개방계사에서는 계사의 중간 중간에 릴레이 환풍기를 설치해 공기가 정체되지 않고 흐르도록 한다.
- 여름철에는 단위 면적당 사육밀도를 10~20% 정도 줄여 체열발산에 의한 온도상승을 감소시켜야 한다.
- 석양 무렵의 직사광선은 더위에 지친 육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개방계사의 경우 해가림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직사광선이 닭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해가림시설은 계사옆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스듬히 설치해야 환기가 잘 된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축사관리 요령 제시

농촌진흥청은 이번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발생 시 가축과 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먼저 축사 지붕과 벽 등을 점검해 이상이 있을 시 바로 보수하고, 침수예상지역은 안전한 지대로 가축들을 이동해야 한다.

또한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쌓아올린 축대는 미리 보수하고 축사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빗물이 축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대규모 가축사육시설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자가발전 시설을 마련하고, 축사의 환기시설 등을 보수하고 보완한다.

가축 분뇨 저장시설과 퇴비장의 배수구를 점검해 빗물이 들어가거나 오폐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축사 바닥의 깔개가 축축할 경우 교체해 축사 내 습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가마니, 비닐, 포대 등 수방자재를 미리 비치해 둔다.

축사 주변을 깨끗이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 질병발생을 막고,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및 소독약을 미리 준비한다.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 등은 수시로 점검하고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축대 근처로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가마니, 포대 등 수방자재를 이용해 가능한 축사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만약, 축사 침수가 시작되면 가축과 이동가능 시설과 장비를 신속히 옮기고 침수가 되지 않은 축사는 강제 환풍을 시켜 축사내부의 습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물에 잠겼던 축사는 물로 깨끗이 씻어 낸 후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기구는 일광소독을 실시한다.

가축에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수기를 수시로 청소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전염병 등 질병이 발생하면 방역기관에 빨리 신고하고 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축사주변 배수와 소독을 철저히 해 질병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비가 그친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 축사 내 습도를 낮춰주고 수시로 분뇨를 제거해 유

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퇴비사와 분뇨처리장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즉시 보완한다.

침수된 축사는 전선의 피복 및 안전개폐기 이상 여부를 점검해 누전 및 감전 사고를 예방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네이버 지식iN 활동 우수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국민에게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지식iN' 답변 서비스가 교과부에 이어 '교육 · 학문'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포털사이트 의존율이 증가하는데 주목하여 2012년 4월부터 네이버와 지식iN 공식파트너로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축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축산물의 소비자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고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질병 조기 검색률 향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 및 조기 검색을 위하여 2013년 상반기(1~5월) 방역 · 위생 · 검역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축질병 검색률 향상과 질병유입 방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월 추진한 가축방역사업실적을 보면,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을 위한 시료채취를 92천여호 682천여 두(수)를 실시했으며, 농장 방역실태점검은 163천 여호를 실시하고, 2,309건의 질병 의심 가축을 발견하여 '가축질병예찰실시결과보고서'와 함께 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140건(검사의뢰건수대비 49%)이 질병 감염축으로 확인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방역조치했다.

또한 해외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전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총 1,929천여 건의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며, 구제역 · AI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사육 · 관리인 12.4천명에 대한 집중예찰과 가축방역정책사항 57건을 7,407천호에 집중 홍보했다.

축산물 위생사업을 통해 7,026천여 두의 도축검사와 수입식용축산물 343천여 톤을 검역 · 검사하여 불합격품은 사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했다.

또한 구제역 · AI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하여 초동방역팀을 가축질병 의심축이 신고된 농가에 총 24회 45개팀 57명이 투입되어 초동대응을 실시했다.

방역본부는 주변국에서 구제역 · AI 등 해외 악성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축질병 조기 검색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사 · 검사원 · 관리수의사의 검색능력을 배양하고 초동방역태세를 유지하는 등 선제적 방역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전체 HACCP연구회 세미나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지난 6월 24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HACCP전용망 구축을 위한 축산업계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전체 HACCP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체 HACCP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별 HACCP 활성화 및 운용수준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관의 비전과 미션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세미나에는 기준원에서 기획 · 운영하는 지역 축산물 HACCP연구회와 기준원의 HACCP발전연구회가 함께 참여했다.

산 · 학 · 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 HACCP 전용망 구축에 관한 특별강연 및 HACCP전용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기준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강구식 사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예정인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명칭이 순화되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설명에 참석자 모두 HACCP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환영할 일이라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

HACCP체인(전용)망 구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단계 혹은 브랜드 경영체가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한 농가 참여 및 유지관리와 출하물의 고정 출하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업계는 정부지원을 기대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농장 혹은 가공 · 유통업체들의 HACCP 활성화 및 운용수준 제고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기준원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조규담 원장은 "축산물 HACCP 전용망의 질적 성장을 위해 업체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며, HACCP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별 HACCP의 활성화 및 운용수준 제고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지원, 2013년 1차 현장자문위원 회의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6월 18일 기준원 중부지원 6층 회의실에서 '2013년 제1차 중부지원 현장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 충남 · 북지역 6개 업체(기관) 6명의 현장자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기준원의 미션 · 비전 및 「축산물 HACCP 체인(전용망) 완성거점 구축 사업」에 관한 설명에 이

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양방향 의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담 원장은 "기관장과 현장자문위원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HACCP정책 및 심사, 민원사항, HACCP 인지도, 위생 · 안전성 등 HACCP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HACCP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자유롭고 진솔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전충남양돈농협의 김재정 위원은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하는 축산물HACCP기준원에 감사를 표한다"며, "현장자문위원회가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축산물HACCP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자문위원들의 HACCP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 후 조규담 원장은 "HACCP 활성화에 대한 현장자문위원들의 열의에 기준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며 향후에도 현장의 소리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축산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행복시대」에 기여하는 기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지난 6월 12일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성 구로구청장, 시의회의원, 타 자치구 센터장, 어린이집연합회장, 협회 임원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에 따라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를 지원해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급식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사)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지난 2월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 구로구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년 6월 1일부터 3년간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게 된다.

이에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경주)는 사무실 및 회의실, 교육실, 조리실습실 등을 마련하고 센터장을 비롯한 기획운영팀, 영양 · 위생팀의 9명의 인력이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고용되어 있지 않은 101개소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단 및 교육자료 지원, 급식컨설팅, 교육 등 안전한 급식을 위한 영양 및 위생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